

일본정부 강제중군위안부 중언청취단 방한을 반대한다.

우리는 소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제국주의 군인과 압잡이들에게 끌려가 강제로 군대 위안부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여자로서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피해자들이다. 평생을 지난 과거의 악몽과 치욕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우리들은 이제 나이 70살의 늙은이 들이 되었다.

우리가 평생 가슴 속에 묻어 둔 일제의 만행에 대해 중언하게 된 것은, 죽기 전에 이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다. 이 일은 내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라 만행을 저지른 일본이 부끄러워 하고 마땅히 사죄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기까지 50년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기막힌 일은 일본정부는 처음에는 "정부는 상관없다. 민간업자가 한입이다"고 발뺌하더니 그후 미와자와 수상은 "미안하다.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대신들은 "일본군이 일정하게 관여했지만, 동원에서 강제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우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어쩌면 그토록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들의 거짓말에서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피해자 당사자들 다수인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협의하여 중언청취단을 파견하였고, 오늘부터 중언청취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일본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중언청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우리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중언청취를 반대하며 중언청취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저 밝힐 것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일본 내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일본이 먼저 일본국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조사하여 2차 보고서에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일제시대에 강제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 중에는 "좋은데 취직시켜준다"는 사기에 걸려 위안부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모든 동원이 강제였다. 우리는 모두 강제로 끌려가 강제로 위안부가 되고 자유를 잃은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런데 일본은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조사도, 공개도 않은채 우리 피해자들의 중언을 통해 강제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들을 중언청취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를 축소하고, 숨기려 하지 않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일본판리 앞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일은 우리에게 고문에 가깝도록 고통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진상규명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성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면은 더욱 고통스럽다.

이제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 지 알고 있다. 일본은 우리를 일본 군대의 위안부로 끌고 가도록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이와 같은 식으로 끌려간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떻게 돌아 왔는지? 그 모든 진상을 규명하라.

셋째, 일본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와 법적 책임으로 배상하겠다는 입장없이 우리들의 중언청취후 강제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도대체 일본은 우리들의 중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일본은 지난해 1차보고서 발표이후 중군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나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런데 그런 일본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채 중언을 청취하려 왔다니 우리를 기만하는 것인가? 일본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법적 책임으로 배상하라.